

# 『여원』의 중심 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

-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이 선옥\*

차례

1. 머리말
2. '주부' 담론의 등장과 중심 이념으로의 부상
3. 문인지망생 주부의 양산과 여성 독자의 형성
4. 여류현상문예의 소설 당선작 분석
5. 맺음말-주부 담론과의 균열과 갈등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여원』에서 실시한 <여류현상문예> 당선소설을 분석한 글이다. 『여원』은 1955년 발간된 여성교양잡지로 창간된 이후 1970년 폐간되기까지 여성작가의 등단과 여성 독자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잡지이다. 이 잡지에서 실시한 현상문예는 85명의 여성작가를 등단시켰다. 그러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거의 문학사에서 사라졌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들의 글쓰기가 대중화되는 시기에 여성작가들이 문학제도와 갈등하면서 어떻게 제도화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여류현상문예 등단소설의 특징은 첫째로 전후 결혼제도의 위기와 경제적 불안을 드러내는 여성 체험이 소설화되었으며, 둘째로 욕망의 발견과 그로인한 감정의 과잉 등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은 이 잡지의 중심 담론인 '주부 담론'과는 균열을 일으키며, 문학 비평의 주된 비평인

\* 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수기같다’, 소설화, 플롯화가 필요하다는 주문과도 갈등을 일으킨다. 여성적 글쓰기의 자기 고백적 특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억압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여성의 자기 체험과 욕망의 드러내기가 문학제도와 어떻게 길항작용을 하는가를 추적해본다면 여성적 글쓰기의 형성과 변모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머리말

전후 시기를 거치면서 1960년대는 여성작가의 시대라 불릴 만큼 여성작가가 양산되는 시기였다. 아동문학가 이영희는 이 시기의 여성문학을 평가하면서 ‘전후에 강해진 것은 여성과 양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후 20년간 여성들은 하나의 공든탑을 이룩했다고 말한다. 전후 여성의 자아는 여성의 쾌감의 발견을 통해 발효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일간지 연재소설 집필작가가 모두 여류일 정도로 여성작가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하고 있다.<sup>1)</sup> 이처럼 여성작가의 활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기억되는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왜일까. 여성잡지에 수록된 많은 작가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잡지의 대중화와 함께 수필, 수기류가 여성 독자에게 인정받았고, 대중연애소설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여성적 장르라 불리는 수필, 수기류나 로맨스 장르가 생산자와 유통산업, 독자층이 형성된 상태에서 소통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성잡지에 실렸던 수필과 수기류만

1) 이영희, 『(여성문화) 다듬어진 땅 더 기름지게』, 『여원』, 1965.8.

2) 이 글에서는 ‘여성들의 글쓰기’라는 표현과 ‘여성적 글쓰기’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여성들의 글쓰기 대중화가 진행되지만 아직은 장르적 특성으로 형성된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여성적 글쓰기’와는 구분하여, 이 시기를 여성들의 글쓰기가 대중화된 시기로 표현하였다.

이 아니라 전문작가의 연재 장편 역시도 문학사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60년대 문단에 갑자기 여류들이 각광을 받았다. 남성작가들을 능가하는 왕성한 발표열은 순한 베스트셀러를 냈지만 과연 그것이 작품다운 작품, 부끄럽지 않은 발전이었는지 반성해 보자.”(『여원』, 1970.1, 232쪽)라는 도전적인 문구로 시작한 김우종의 글은 여성작가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60년대 여성작가의 부각 요인으로 “섹스, 센티멘탈리즘, 여류잡지의 부음, 여류들이 둘러입고 다니는 치맛자락의 위력”(233쪽)을 들고 있다. 우선 문학적 특징을 지적하는 섹스와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분석을 보면, ‘눈물의 문학’이라 할 만한 알파한 센티멘탈리즘에 “섹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남성작가들보다 훨씬 대담무쌍한 실력”(234쪽)을 보여주고 있어서 남성작가들의 소박한 성취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섹스 묘사와 관련해서는 전병순이 성묘사 문제로 법정까지 갔었던 사건과 김영희의 창작집 『고독한 축제』의 표지가 여자의 성기 그림이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남성작가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의 문학이 부각된 배경은 여성잡지의 붐과 ‘권 없는 여류문인들’의 ‘흠·바’의 위력, 정부기관의 초대 등 ‘여류’로서의 사회적 호명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좀 극단적인 평가로 보이지만 여성문학에 대한 폄하와 비판은 일반적인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문학에 대한 당시의 좌담회에서도 비판적 평가와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학을 지망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잡기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거나(『좌담-여류작가의 애환』, 현대문학, 1966.7, 41), “사회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 여류작가의 결정적인 약점”(강인숙, 『한국현대여류작가론』, 현대문학, 1968.1, 358)이라는 평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평단의 흐름 속에서 여성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의 드러내기가 민족이나 사회적 의미를 요구하는 문학제도와 화해로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sup>3)</sup>

이러한 5, 60년대 여성문학의 유행 현상과 여성 독자의 생산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여원』에서 구성하고 있는 여성성(역할, 성격, 이미지, 성관계의 특성 등)에 대한 중심 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중심 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 간의 충돌 혹은 균열은 이 시기 여성성의 구성을 둘러싼 서사적 경쟁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여성성을 둘러싼 서사들은 특히 국가의 이념이 재구성되는 시기 격렬하게 진행되는데 여성성의 구성이 단순히 여성에 대한 논의일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재구성, 한 사회의 가치 위계의 재구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과 시기는 195, 60년대 여성잡지 『여원』에서 실시한 <여류 현상문예>를 통해 당선된 소설을 중심으로 한다. 전후 195, 60년대는 여성문학이 대중화, 제도화되는 시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 여성성의 구성과 문학제도, 장르적 특성의 상관관계가 수립 정착하는 과정은 이후 현대문학에서 여성문학이 존재하는 방식의 기본틀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의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등단제도나 문예지, 여성지가 여성작가들을 양산하는 시대에 등단하는 작가들은 그 이전의 작가들과 다른 독자 기반과 장르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 2. ‘주부’ 담론의 등장과 중심 이념으로의 부상

『여원』(1955.10-1970.4)과 『여상』(1962.11-1967.11)은 195, 60년대의 여성 혹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잡지라 할 수 있다. 전쟁으로

3) 이선옥, 『열광, 그 후의 침묵과 단절의 의미-4·19 세대 여성작가』(『4월 혁명과 한국 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2) 참조.

절대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여성성을 재규정하고 급속한 산업화에 적합한 여성상을 담론적으로 구성해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잡지이다.<sup>4)</sup> 여성을 ‘주부’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명명하고, 1960년 1월호에 가계부를 최초로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이후 가계부 쓰기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알뜰’, ‘교양’, ‘합리’ 등을 모토로 삼으면서 가정주부상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제기하였으며, 수기공모와 여류현상문예당선작 등을 통해 기성문학제도외는 또 다른 여성 등단제도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여원』이 여성 교양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늦게 출발한 『여상』은 2,30대 직장 여성이나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상적이고 상업적인 기사들이 늘어나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원』과 『여상』의 비교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우선 이 글에서는 『여원』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잡지를 분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다양한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을 반영하듯 잡다한 기사들이 공존한다. 따라서 잡지가 단일한 중심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실제 15년 동안 매월 발간된 잡지가 단일한 목소리일 수 없으며, 단일한 이념으로는 많은 독자를 수용할 수도 없다. 두드러지는 특집들만 보아도 새로운 가족윤리나 직업여성 담론, 여성해방이론의 소개(시몬느 보바르, 베티 프리단 등의 여성해방 이론도 소개되고 있다.), 성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기사들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들의 겹침들이 충돌해가면서 어떤 경향성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여원』이라는 텍스트에서 쇠퇴하는 이념과 부상하는 이념 그리고 중심 이념의 부침과 형성 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sup>5)</sup>

4) 『여원』(1955.10-1970.4)은 학원사에서 발간하다가 1956년 6월부터 여원사를 설립 발간하였으며, 『여상』(1962.11-1967.11)은 신태양사 발간하였다. 『여상』은 1968년 2월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으나 1967년 11월호까지 구독할 수 있었다.

어떠한 이념적 경향성으로 중심 이념을 구성해가는가를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주부 담론이다. 1961년 8월호를 예로 들어 보면 이러한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호에는 「현대 프랑스 여성의 고민」이라는 기사에서 프랑스의 남녀평등이념과 성의 자유 등을 소개하며, 시몬느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을 소개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연이어서 5.16 혁명의 혁명정책을 반영한 「주부생활의 재검토 10장」이 특집으로 이어진다. 특집에는 “우리의 생활을 혁명하는 것은 주부의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절약과 애국심, 준법정신과 애국심, 봉사와 애국심을 주장한 정충량의 글과 위생지식 부족, 근로정신 부족, 독립정신 박약, 성교육 부재로 인한 인구증가 등의 민족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부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학박사 유병서의 글, 그리고 박기원, 손소희, 박화성, 조정희 등 문인들이 주부들에게 주는 생활개선 제언이 실려 있다. 앞의 기사와 이 특집은 서로 충돌하지만 잡지라는 특성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애국심과 관련된 ‘주부 담론’은 1961년을 기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해서 구체화되고 확산된다. 담론을 자연화하는 방식도 노골적인 애국심에의 호소보다는 점차 ‘행복’의 조건으로 세련되어진다. 행복의 조건에는 ‘가족계획’<sup>7)</sup>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부와 가장, 아이들로 구성된 핵가족을

5) 레이몬드 윌리엄즈는 문화의 이념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쇠퇴하는 이념과 중심이념, 부상하는 이념의 충돌과 경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글의 분석은 이러한 분석틀의 도움을 받았다.(이일환 역, 『문학과 이념』, 문학과지성사, 1982, 152-159쪽)

6) 1961년 7월호에는 「(생활의 지혜③)베티 후리덴: 여성으로서 할 일」이라는 기사에서 중산층 여성의 우울증과 공허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그것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고 딴 사람의 경험도 소용이 없으며, 모방할 모델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그 해답을 구해야만 한다. 그 해답을 남성의 세계에서 구하려 할 필요도 없고 여성의 세계에만 엮매일 필요도 없다.”(97쪽)는 그녀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여성의 자아 찾기를 역설한다.

7) 「(특집)가족계획에 대한 긴급동의」(1969.9)에서 한국남은 맬더스의 인구론 즉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을 소개하면서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에서 방법과 도구를 다오)」 그 외에도

새로운 이상적 가정으로 등장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이상적 가족 이미지는 ‘스위트 홈’ 즉 ‘행복’이라는 기표로 포장될 때 자연화되고 내면화될 수 있다. 1964년부터 실시된 여원사 제정 ‘홈 송 가사현상모집’과 ‘생일 노래공모’ 등도 주부담론과 이상적 가족 이미지를 내면화시키는 장치들이라 볼 수 있다.

핵가족에서 주부의 역할은 살림과 내조, 아이들 교육으로 구성되며-직업을 가진 주부들도 주부라는 정체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드러내거나 질책하는 글들이 자주 실린다- 이 역할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성과 합리성은 지적 교양을 지닌 새로운 교육계층 여성들을 주부역할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장치가 되는데, 주부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상적 주부 모델이 제공되기도 한다. 『(연재 르포르타주)살림 잘 하는 주부』가 그 예로 1964년에서 1965년에 걸쳐 연재되기도 한다.

주부 담론과 관련하여 좀더 심화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행복’, ‘과학성과 합리성’이라는 내면화 장치와 ‘전통’과의 만남이다. 어머니의 역할, 내조의 기법 등이 특집으로 다루어지는 등 주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논의<sup>8)</sup>들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과 함께 눈에 띄는 기사들은 신사임당

---

홍순창, 한일영 등 의학박사의 피임방법에 대한 글이 실려 있고, 편집부의 글에서도 재건운동 본부의 16개 실천안 가운데 가족계획이 중요하다고 소개하면서 피임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8) 『(특집) 신어머니학 입문』, 『여원』, 1961.5.

『(특집) 어머니의 역사』, 『여원』, 1962.5.

강영수, 『남성을 성공시키는 아내의 재주』, 『여원』, 1962.5.

『위대한 어머니들』, 『여원』, 1963.5.

『독자수기특집: 어머니의 초상』, 『여원』, 1963.5.

『어머니께 드리는 백서』, 『여원』, 1963.5.

『(특집) 어머니가 주신 교훈』, 『여원』, 1964.5.

편집부, 『프란체스카 여사의 내조와 그 공과』, 『여원』, 1965.9.

『공동연구-내조의 기법, 남편의 출세를 어떻게 도울까』, 『여원』, 1969.2.

과 전통적인 모성을 부각시키는 담론들이다. 「전통의 발판 위에 서라」(1963.2)라는 특집으로 주부들이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도 혁신만 하려는 조급함도 버려야한다고 지적한다. 민족적 자각과 세계문화의 조류를 함께 이해할 때, 즉 전통의 재해석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민족주의 국가 이념을 형성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급속한 근대화를 택한 박정희 정부는 서구화와 정체성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내적 영역의 형성 전략이 필요했을 터인데,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기묘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족의 ‘전통’이 서구화에 대응해서 지켜야 할 무엇이라는 전통의 창조에 착수하게 된다. 지켜야 할 그 무엇인 ‘전통’은 무한경쟁에 돌입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젠더화되고, 그리하여 여성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 한국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동양적 정신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제국주의와의 경쟁에서 불안해진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서사적 반영에 해당한다.<sup>9)</sup> 신사임당이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여성이 전통의 담지자로서 민족혼의 비유로 신비화되는 과정이 『여원』에서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간 전통의 창조에 대한 논의들이 진전시켜왔던 분석처럼 전통은 현재에서 과거로부터 불러오는 담론이지 실제 과거의 사실이 아니다. 결국 과거가 아니라 당대의 여성성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를 말해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민족의 어머니’라는 상징적 이미지와 ‘과학적 합리적 알뜰주부’의 이미지가 여성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두 이미지로 보이는데, 개인의 성공 혹은 개별 가족의 성공을 지향하는 주부와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는 민족의 어머니는 서로 충돌하는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9) 민족주의 서사가 중산층 여성을 여성성의 중심으로 불러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선옥, 「젠더 정치와 민족간 위계만들기」(『여성문학연구』 15호, 2006) 2장 민족주의 서사와 여성성의 재구성 참조.



하고 마치 화해로운 역할처럼 그려진다. 그러나 5, 60년대의 잡지인 『여원』에서는 아직은 민족의 어머니 담론은 부상하는 이념이라 판단된다. ‘알뜰 주부’ 담론이 중심 이념으로 형성되는 한편 새로운 전통 담론들이 부상하는 상태라 볼 수 있다.

초창기부터 고정 포맷으로 변함없이 다루어진 기사가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생활기사’라는 점도 중심 이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부업 개량에서부터 옷 만들기, 합리적인 식생활, 원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살림살이의 지혜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옷 관리법이나 칼로리 계산법, 부업의 개량 등에 대한 자세한 수치의 제공은 살림살이가 어떻게 과학과 연결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어떤 독자를 대상 독자로 삼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교양 계층인 주부가 주 독자층이라는 점은 ‘식모’에 대한 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58년 8월 좌담회 『식모: 생활개선을 위한 주부들의 공동연구』에서는 식모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합리적인 관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오랫동안 연재된 만화 정운경의 월순 아지매 역시도 ‘식모’의 시각에서 ‘중류 주부’의 허영심을 경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식모’라는 타자의 시선으로 바람직한 ‘주부’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1968년 ‘살림 잘 하는 주부상’을 제정하여 70년 폐간까지 3회 수상자를 내기도 한다. 이 상은 그간 『여원』이 전개한 가계부 적기 운동의 결실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 3. 문인지망생 주부의 양산과 여성 독자의 형성

이상적 주부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육을 받은 교양 세력이라고 할 때 이들의 자기 실현 욕구가 표현될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출구의 역할을 한 것이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여원』이 종합지임에도

유독 문학관련 기사와 작품이 많이 실렸다는 사실<sup>10)</sup>도 당시 문학이 교양 있는 여성의 소양으로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원』은 현상 소설 공모를 통해 여성작가를 등단시키는 산실이었으며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실어 여성문학의 대중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원』이 여성성의 구성이나 여성적 글쓰기의 장르적 특질을 구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표적인 5, 60년대 여성소설가의 등단경로를 보아도 『여원』의 위상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등단제도를 보면 신춘문예와 신문사 장편공모, 문예지, 여성지 등 다양해진 경로를 볼 수 있는데(표1) 그 중에서도 여성작가가 등단하는 주요 잡지로는 『현대문학』과 『여원』이 가장 눈에 띈다. 5, 60년대 등단 여성소설가들의 등단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5,60년대 등단 여성소설가 목록<sup>11)</sup>

<p>구혜영(31년 생):『안개는 걷히고』(사상계 신인문학상 당선, 55.7)/김영희(36년 생):『수평의 서단(西端)』(현대문학, 61.11)/김의정(30년 생):『인간에의 길』(경향신문 장편소설현상모집에 당선, 61.3)/김지연(42년 생):『천태산 울너』(매일신문 신춘문에 당선, 67.4)/김진옥(27년 생):『우주의 심곡』(월간문학, 69.9)/박경리(27년 생):『계산』(현대문학, 55.8)/<b>박기원(29년 생):『귀향』(여원 56.1)</b>/박순녀(28년 생):『케이스 워커』(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 60)/박시정(42년 생):『초대』(현대문학, 69.3)/손장순(35년 생):『입상』(현대문학, 58.1)/송숙영(35년 생):『원근법』(현대문학, 59.3)/송원희(30년 생):『화사』(문학예술, 56)/송정숙(36년 생):『사생아』(현대문학, 63.3)/안영(40년 생):『월요 오후에』(현대문학, 65.3)/이규희(37년 생):『속술이땀의 냉이』(동아일보 장편현상문에 당선, 63)/이석봉(28년 생):『빛이 쌓이는 해구』(동아일보 장편모집에 당선, 63)/이세기(40년 생):『화자』(현대문학, 67.10)/이정호(30년 생):『인과』(현대문학, 61.2)/<b>전병순(29년 생):『뉘누리』(여원, 60.1, 전희순으로 등단)</b>/정연희(36년 생):『과류상』(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57.1)/<b>최미나(32년 생):</b></p>
---

10) 『여원』 100호 기념 통계에 의하면, 창간 이후 8년 동안 게재 기사 건수별로 볼 때 소설 34%, 수기 4%, 수필 3.5%, 시 0.5% 총 42%가 문학 기사이다. 그 외에는 특집 21.5%, 교양기사 14.5%, 의식주 9%, 광고 8%, 좌담 대담 3%의 순으로 기사가 실렸다. (『여원』 100호 기념, 『여원의 분석과 통계』, 『여원』, 1963.12, 109~110쪽)

『등반』(여원, 58.1)/한말숙(31년 생):『별빛 속의 계절』(현대문학, 56.12)/허근욱(30년 생):『내가 설 땅은 어디냐』(여원, 59.9)

앞서 분석한 것처럼 교육받은 교양세력으로서의 여성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에 ‘알뜰 주부’는 일정한 교양을 갖춘 전문적 주부의 상으로 제시되었다. 여성교양지가 살림지식과 과학지식, 세계상식을 주 정보로 삼는 이유도 이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들이 자기발전 욕망을 주부라는 역할과 병행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식이 ‘문인지망생’이 되는 일이었다. 문학이 집안에 갇힌 여성들이 개인적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었음<sup>12)</sup>을 상기해 보면 주부 담론과 문학이 여성지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문인지망생 주부가 문인들의 아르바이트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 이들의 등장은 주목해 보아야 할 현상이다.

“스스로 선택한 가시 면류관을 몇 번이나 한탄하였다. 그러나 창작에 몰입하는 기쁨은 법열과 같은 것인지 베어버릴 수 없는 집요한 애착이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자문할 적에 이 단 한 가지의 삶의 보람마저 없다면 공동(空洞)보다 더 큰 허무와 무의미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수록 옷깃이 여머지는 것이다.”(최미나, 『형극의 길』, 당선소감, 여원, 58.1, 261쪽)

수필로 등단한 이후 소설로 재등단한 최미나는 『여원』이 발굴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녀의 당선소감에는 문학이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벗

11) 권영민, 『한국현대문인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1)에 실린 여성소설가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박기원, 전병순의 등단년월은 『여원』 검토 후 문인사전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다.

12) 주디스 뉴튼·데보라 로젠펠트, 『유물론적 여성해방비평을 향하여』,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90, 82쪽.

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새로운 여성 지식층이 급증<sup>13)</sup>하였지만 이들의 사회적 진출이 불안한 상황에서 문학은 상당한 매력을 지니는 출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실제 현상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의 이력을 보아도, 현직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출신이거나 기자, 은행원 등의 직업 경험이 있는 주부가 자주 눈에 띈다. 직업을 가지기도 어렵고, 설령 현재 직업이 있다 해도 가정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시적이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이 가정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원』이 ‘여성종합교양지’를 잡지의 성격으로 내걸고 창간한 이후 주로 다루어온 내용을 구분해 보면, ‘생활’, ‘세계’, ‘문화’, ‘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익달의 창간사(창간호 1955.10)에서도 여성들의 문화의식이 알고서는 국가사회의 번영발달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여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하고자 한다는 여성교양 함양의 목적이 드러나 있다. 구성상의 특징은 조금씩 변화하지만 ‘특집, 화보, 문학, 만화, 생활교양, 해외소개, 문화소식’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교양 지식을 바탕으로 직업적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문학인이 되는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들 반영하듯 『여원』은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싣고 있으며, ‘여원수필’, ‘여원수기’, ‘독자문예’, ‘현상여류문예’, ‘작가 추천작품’, ‘수기현상모집’ 등 문학 글쓰기를 통해 독자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문예는 작가를 지망하는 여성들의 욕망에 부응해 판매부수를 올리는 전략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100호 기념 기

13) 1960년 당시 대학의 등록학생 수는 남 80,770/여 17,045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화수, 『4월 혁명의 정치행태학적 분석』, 『사상계』, 1966.3, 195쪽).

사에서도 여성잡지사에서 최초로 100호를 돌파했고 “6만 독자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여류문단 독현(讀賢)의 은덕에 있음을 자각하는 바”라고 밝히고 있다.<sup>14)</sup> 여류문학을 읽는 독자들이 잡지의 중심 독자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여원』은 195, 60년대 여성작가와 여성독자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현상여류문예의 당선작 역시도 이 시기의 여성문학의 여성성 구성이나 장르적 특징을 볼 수 있는 주요한 작품이라 판단된다.

#### 4. 여류현상문예의 소설 당선작 분석

『여원』 ‘여류현상문예’는 1955년 10월 창간호에 공모 광고가 실린 것으로 보아 이 잡지의 전략 사업으로 기획되었을 것이다. 1956년 1월 1회 발표를 시작으로 1970년 15회까지 매년 1월 당선작 발표를 빠뜨리지 않았고, 응모 숫자도 매회 각 장르 당 50여 편에서 200여 편을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괄적으로 당선작과 심사위원, 응모편수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류현상문예 당선작〉

	소설	시	수필
1회 1956	당선1석(상금 3만원) 『가막섬 우화』-박정자	1석 해당작 없음	1석(상금 일만원) 『미용기』-진소희
	2석(상금 이만원) 『귀향』-박기원	2석(상금 5천원) 『지난해랑 잊어버리고』-김해숙	2석 『슬픈 훈련』-이석순
	가작(상금 일만원)	가작(상금 2천원)	가작 『여성미』-이혜석

14) 『여원지령 100호기념 한국여류문학상창설』, 『여원』 1963.12, 102쪽. 100호 기념으로 ‘한국여류문학상’을 창설하여 매회 시상하였다.

	『스마트라』-박선자	『영이에게』-이상은	
심사	백철, 최정희, 조연현	서정주, 모윤숙, 조지훈	마해송, 조풍연
응모	64편	206편	39편
2회 1957	1석 해당작 없음	1석(상금 2만원) 『노을』-박정희	1석(상금 1만원) 『옥양목과 우리 하늘』-최미나
	2석(상금 2만원) 『탈각』, (『삭발』개제)-최예순	2석(상금5천원) 『달』-김선영	2석(상금 5천원) 『비 개인 가을 아침에』-조삼주
	가작 해당작 없음	가작(상금 2천원) 『산딸기』-하향녀	가작(상금 2천원) 『가을과 써커스』-하향녀(시 『산딸기』가작 당선자)
심사	백철, 최정희, 정비석	서정주, 조지훈	송지영, 이명은, 조풍연
응모	57	183	59
3회 1958	당선 『등반』-최미나(본명 최은례, 2회 수필 당선자)	당선 『반월』-최희숙	당선작 없음
	가작 『광장』-박수복	가작1석 『코스모스』-윤화자	가작1석 『초산기』-이종순
	가작 『청첩장』-허남이	가작2석 『편지』-정미영	가작2석 『박꽃』-하계진
			가작2석 『추기병상수감』-김혜미
심사	김동리, 박영준, 장덕조	서정주, 김동리	마해송, 전숙희
응모	51	187	62
4회 1959	당선 『귀결』-박정희	당선 『산 위에서』-박현영	당선 『죄인』-심남주
		가작 『유월에』-김두희	가작 『발가락의 의미』-김현옥
심사	김동리, 박화성, 최정희	서정주, 김용호	조풍연, 전숙희
응모	42	216	47
5회 1960	당선 『뉘누리』-전병순	당선 『당신 창문 곁에서』-김근숙	당선 『송아지』-정정자
	가작 『방천뚝 사람들』-정양	가작 『기폭 아래서』- 이경아	가작1석 『수상 3제』-김연실
			가작2석 『한강』-안경자
심사	김동리, 최정희, 황순원	서정주, 김용호, 박기원	조풍연, 전숙희
응모	26	93	35

6회 1961	당선 『불안』-장예중	당선 『가을』-윤계숙	당선 『교단 주변』-강정희
	가작 『역류』-김순애		가작 『얼굴』-정소영
	가작 『총명의 종말』-홍징자		
심사	박화성, 장덕조, 손소희	서정주, 김용호, 김남조	조경희, 전숙희
응모	75	150	75
7회 1962	당선 『공원근처』-최금숙	당선 『아가』-최금숙	당선작 없음
	가작 『잃어버린 동화』-정영자	가작 『설야 외 1편』-장인수	가작 『어느날 오후』-문옥선
	가작 『미소로 끝난 대화』-박혜엽	가작 『박』-손리숙	가작 『생일』-녹윤
		가작 『송도』-홍혜린	
심사	박화성, 장덕조, 손소희	서정주, 박목월, 김남조	편집부
응모	88	174	120
8회 1963	당선작 없음	당선 『플빛화관』-이운아	수필부문 폐지
	가작 『빙하시대』-이난숙		
심사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서정주, 김용호, 박목월	
응모	125	230	
9회 1964	당선 『눈 주변』-김채숙	당선 『연가』- 조정자	
	가작 『어머니와 이들』-김윤자		
심사	김동리, 박화성, 박종원	서정주, 김용호, 박목월	
응모	105	180	
10회 1965	당선 『닭은 상』-조정연	당선 『꿈을 위하여』- 최정자	
심사	김동리, 박화성, 강신재	박목월, 김용호, 신석초	
응모	131	278	
11회 1966	당선 『진공지대』-박혜숙	당선작 없음	
		가작1석 『슬픈 설화』- 석정자	
		가작2석 『난로가에서』- 김지영	

심사	박화성, 안수길, 강신재	서정주, 박목월, 김종문	
응모	173	191	
12회 1967	당선 「적설」-이청우	당선 「꿈과 사랑의 노래」- 문광미	
심사	안수길, 박종원, 강신재	서정주, 조지훈, 김남조	
응모	252	180	
	소설	시	시조(신설)
13회 1968	당선(상금 1만원) 「세발 자전거」-이단영	당선(상금 5천원) 「꽃의 제단」-강은교	당선작 없음
	가작1석 「붉은 소용돌이」-이혜숙	가작 「생활의 장」-배미순	가작 「매화」-김정자
	가작2석 「축제의 한낮」-이수연	가작 「밤에 띄우는 音符」-송영희	
	가작3석 「날아간 풍선」-정은경		
심사	김동리, 박경리	조지훈, 박목월	이영도
응모	168	156	51
14회 1969	1석(상금 3만원) 「우계(雨季)」-김정숙	1석 (상금 1만원) 「양산도」-한수정 「과원」-홍윤정	1석(상금 1만원) 「너 앞에」-정표년
	가작1석 「낮선 거리」-이윤희	가작 「병풍」-김차욱	가작1석 「일지매」-김정자
	가작2석 「오술이」-김현숙		가작2석 「야국」-박정숙
			가작 3석 「눈오는 날에」-방말자
			가작 4석 「속무」-김승아
심사	안수길, 한무숙	박두진, 김현승	이영도
응모	42	87	37
15회 1970	당선(상금 4만원) 「부제」-박진숙	당선(상금 2만원) 「가을의 새」-배미순	당선 「남향시초」-한상숙
		가작 「원시림의 새」-박수림	
		가작 「나무의 성」-정일선	



심사	안수길, 전병순	박목월, 박두진	이영도
응모	밝히지 않음		

전체 등단작가의 숫자는 소설 당선자 30명, 시 당선자 32명, 수필 18명, 시조 7명 등 87명이다. 여기에 장르를 바꾸어 재당선된 작가 2명을 감안하면 전체 85명의 작가를 등단시켰다. 문예지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숫자의 작가를 등단시킨 것이다.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도 아니고 접하기 쉬운 작품들도 아니어서 주요한 작품들의 줄거리 소개와 함께 분석해나가고자 한다. 『여원』 현상여류문에 소설 당선작(30편)의 주제 분포를 보면, 12편이 유부남과의 애정, 첩, 후취의 불안을 다룬 작품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전후의 고아나 처녀 가장이 된 여성의 가난과 불안한 삶을 다룬 작품이 7편이다. 여성의 감정이나 욕망의 새로운 발견이라 할 만한 주제를 그린 작품은 5편으로 그 뒤를 잇는다.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이 세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당시의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와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로 보인다. 전쟁 경험, 전후의 가난 등은 사회적 분위기와 연결되는 주제이지만 이 작품들은 정치적 사건이나 민족주의 논의 등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회적 소재 역시도 성폭행 혹은 생활고와 같은 여성적 삶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정치적 소재들도 여성의 시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주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심을 이루는 주제도 결혼과 사랑, 특히 전후의 상황이었던 유부남과의 사랑, 가족제도의 변화, 생활고로 인한 불안, 매춘 심리 등 성과 사랑, 결혼과 가족, 생계 등 여성의 직접 경험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세 주제를 중심으로 현상여류문에 당선작들에 나타난 여성의 체험과 여성성의 특성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4.1. 결혼제도의 위기와 경제적 불안의 여성 체험 소설화

앞서 분류한 주제의 특성을 보면, 현상여류소설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진 주제들은 여성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이 자기 체험에 대한 고백적 글쓰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리타 펠스키는 “여성의 고백적 글쓰기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씀으로써 억압받거나 불가시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여성 경험을 확인하려 한다”<sup>15)</sup>고 말한다. 『여원』으로 등단한 작품들이 유독 여성의 직접 체험과 밀접한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도 이러한 고백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유부남과의 애정이나 첩, 후취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한 삶을 다룬 주제는 전후 여성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으로 많은 남성들이 사망 혹은 실종된 상황에서 여초 현상이 빚어졌고, 결혼제도는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현상소설들도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허남이의 『청첩장』(『여원』, 1958.2)은 작품으로는 아직 미숙하지만 사랑과 결혼에 대한 여성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인애는 교원 경력 10년의 여학교 교사이다. 그녀에게는 3명의 남자가 있는데, 첫 번째 남자는 6·25로 변사하였고, 첫 남자의 친구인 석구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랜 병중에 있는 아내가 있고, 둘의 사이는 친구를 가장하고 있다. 새롭게 만나게 된 철민과 결혼을 해보려 하지만 석구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 철민은 사십에 가까운 나이의 강사로 젊어서 학병으로 끌려가 무질서한 생활을 한 결과로 폐병에 걸려 결혼을 미루게 된 인물이고 석구는 병든 아내와 아이들을 짊어진 불행한 가장이다. 둘 사이에서 흔들리던 인애는 석구 아내의 부고를 듣게 된다. 그러나 유학을 떠나는 석구와의 이별로 작품은 끝을 맺고

15) Rita Felsky, *Beyond Feminist Aesthetics*, Harvard University, 1989, 112쪽.

있다. “역시 청첩장을 메꾸는 것은 좀더 기다려 봐야 하겠어”(330쪽)라는 인애의 다짐으로 보아 주인공의 미래는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다. 이 작품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랑과 결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이지요?”(327쪽)라는 주인공의 물음 때문이다. 안정성이 파괴된 결혼제도 하에서 여성들이 사랑과 결혼의 분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상황적인 고민이든 혹은 주체적인 선택이든 사랑과 결혼의 견고한 결합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을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청우의 『적설』(『여원』, 1967.1), 이단영의 『세발 자전거』(『여원』, 1968.1) 등도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룬 작품들로 『적설』은 독특하게 “대학생들의 풍속도의 일단면을 펼쳐보이면서 그들의 정감, 고민, 애정, 사고 등 여러 면의 감정생활을 엿보게 해주는 작품다운 작품이었다.”(307쪽)는 강신재의 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하숙집, 책방, 다방, 출판사, 화랑으로 이어지는 대학생들의 일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관념의 세계와 배회하는 삶이 그려지고 있다. “아주 무료할 때 곧잘 찾아가는 정숙의 다락방으로 인도되는 그 층계, 아주 돈이 부족할 때 번역거리를 얻으러 빈번히 드나드는 저 가회출판사의 층계들은 모두 빼격거리는 소리들을 낸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만나는 세계와 일상은 <빼격거림>뿐이다.”(318쪽)라는 대목에서 주인공의 삶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그려내고 있다. 빼격거리는 층계들처럼 ‘나’(수진)의 삶은 기묘하게 어긋나는 상태이다. 나는 심리학과 현기옥교수와 사랑에 빠지지만 유부남이고 교수인 그와의 관계 또한 빼격거림의 연장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관념론을 펼치는 교수와 다정한 은사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들의 위장된 결론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위의 작품들이 지식인 여성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불안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여성을 첩으로 몸 파는 여자로 몰락시

키는 생계의 불안이 존재한다. 박수복의 『광장』(『여원』, 1958.3), 김윤자의 『어머니와 아들』(『여원』, 1964.1), 이혜숙의 『붉은 소용돌이』(『여원』, 1968.1) 등의 작품에서는 첩의 불행이나 처첩갈등, 그러한 여성의 운명적 비극을 다루고 있다. 『광장』은 작부였다가 첩으로 삶을 유지하던 주인공이, 본처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결국은 원치 않는 임신에 낙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죽게 된다는 비극적 이야기이다. 가난은 늘 여성들을 첩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인지, 가난한 여성의 문제를 다룰 때 유독 몸을 팔게 되는 여성의 상황이 자주 그려진다.

지식인 여성들의 삶도 경제적 불안은 마찬가지로 있어서 최미나의 『등반』(『여원』, 1958.1)과 조정연의 『닭은 상』(『여원』, 1965.1), 박해엽의 『미소로 끝난 대화』(『여원』, 1962.2)는 지식인 여성의 삶도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처첩의 관계가 하나의 순환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등반』은 미술학도였던 청상과부(장산주)를 주인공으로 여성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가를 보여준다. 주인공 장산주는 지금은 상업그림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청상과부이다. 남편은 급성 복막염으로 죽고 유복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간다. 첫사랑 영진이 유학에서 돌아오고 그녀를 돌봐주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 표정에 순간 드러나는 주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를 피해 이사를 하고 외로운 마음에 댄스홀을 다니게 된 산주는 어느날 남자와 호텔에 가게 되지만 임검이라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남자를 보며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다.

조정연의 『닭은 상』(『여원』, 1965.1)은 할머니, 어머니, 나로 이어지는 몸 파는 여자들의 인생을 다룬 소설이다. ‘나’(이명환)는 아버지를 모르는 출생의 비애를 안고 있는 인물로 전쟁통에 남의 첩살이를 하게 된 엄마의 노력으로 대학생이 된다. 그러나 엄마의 급작스런 죽음 이후 생활고에 내몰린 ‘나’는 광적인 기분에 휩싸여 몸을 팔게 된다. 자신이 사

랑하던 교수와도 잠자리를 하게 된 명한은 엄마의 인생처럼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한 채 거리로 나간다. 여성의 삶이 운명처럼 반복된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박해엽의 「미소로 끝난 대화」(『여원』, 1962.2)는 자궁암인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피빨래 묘사가 실감나는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도 유부남과의 관계가 사랑인지 불륜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주인공 혜원이 수술비를 그에게서 빌리려는 순간 매춘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다루었다. 사랑이 아니라 매춘으로 변해버린 관계를 시니컬하게 바라보게 된 그녀는 호텔을 뛰쳐나와 거의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

이 작품들은 불안해진 결혼제도 속에서 성과 사랑, 결혼의 관계를 고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후의 상황에 대한 여성적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주제인데, 결혼제도의 안정성이 회복되거나 혹은 완전히 제도 밖으로 탈출하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여성들의 심리적 정황은 불안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후 상황에 대한 여성적 체험의 또 다른 모습은 고아나 처녀 가장이 된 여성의 가난과 실업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드러난다. 이난숙 「빙하시대」(『여원』, 1963.1), 김정숙의 「우계」(『여원』, 1969.1), 이윤희의 「낮선 거리」(『여원』, 1969.2)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난숙의 「빙하시대」(『여원』, 1963.1)는 플롯화가 덜 되고 문장도 거칠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그러나 월남한 가난한 처녀 가장의 이야기로 전후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소재로 보인다. ‘나’(송운숙)는 신경통을 앓는 어머니와 상이군인인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처녀 가장이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빠져금으로 취직하려던 나는 겁탈당할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린 소식은 남동생이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어이없는 소식과 어머니의 죽음이다.

김정숙의 「우계」(『여원』, 1969.1)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는 인기 성우

신혜빈이다. 그녀는 파산지경인 지방출판업자의 가난한 딸로 생활을 위해 시도 사랑도 가질 수 없는 우울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녀는 시인으로 등단한 문을 오랫동안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현실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어서 두 사람은 감정을 확인하면서도 서로의 현실적인 삶으로 이끌려 간다. 줄거리는 상투적이지만 서술 방식의 새로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리들의 감정을 이렇게 지금 유리컵에 붓고 싶구나. 그래서 그 감정의 농도, 색채, 온도 등의 정확한 실체를 느끼고 싶구나”(150쪽)라는 문(文)의 말처럼 이 소설은 ‘나’의 내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충실하다. 그와의 이별조차도 사건이기 보다는 감정의 흐름으로 다루어진다. “열시 반은 넘어 있었다. 곡예를 하듯이 몸짓들이 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흐느적거렸다. 밤차를 타야지. 머리가 어지럽다. 밤차를 타야지.”(151쪽) 그녀의 어지럼증과 고향 바닷가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비오는 거리에서 어지럽게 흔들리는 서술로 이 작품은 끝을 맺고 있다.

이윤희의 「낮선 거리」(『여원』, 1969.2)도 앞의 작품과 유사하게 생활 고로 대학을 중퇴하고 잡지사 기자로 취직한 ‘나’(경원)의 가난과 불안을 다룬 작품이다. 나는 “날씨가 흐려지면 오래 신경통처럼 와닿는 불안”(338쪽)을 안고 사는 인물이다. 그녀의 불안이 생활고나 실업에 대한 두려움같은 현실적 고민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내면적인 고독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불안의 확산, 내 표정을 받아들인 그의 몸집에서 나는 그것을 감지 할 수 있었다.”(337쪽)는 표현처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은 짐작할 수 있다. 주인공 ‘나’는 반강제적으로 출판사를 사직하게 되는데, 친구인 형식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가는 환영을 본다. 형식은 자신에게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며 취직을 반대했던 인물이며,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 동류의 인생임을 그녀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들은 여성의 체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지나치게 자기 경험을 드러내서 수기류 같거나 소설적 구성이 덜 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곽종원은 “후보에 오른 12편은 대부분이 작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수기 비슷한 인상이 짙었”(심사평, 67.1, 308쪽)고 평가하면서 소설적 구성을 요구하였다. 플랫폼은 심사평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단의 기준이었다. 그래서인지 초기의 작품들은 1인칭보다 3인칭을 선호한다.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1인칭 서술상황이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자전적인 것에 대한 폄하 분위기와 자기 경험의 드러내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 전면적인 자기 드러내기를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객관화에 대한 압박같은 억압적인 글쓰기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비평적 거리보다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험의 드러내기’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

#### 4.2. 욕망의 새로운 발견 그로인한 불안과 감정의 과잉

현상여류문예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낭만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sup>16)</sup> 위의 작품 분석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이 작품들의 정서적 특징은 불안과 낭만적 세계인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성과 사랑, 일, 생계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기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의 특징은 낭만적 정서로 판단된다.

박기원의 『귀향』(1956.1)은 주인공 인규의 허무, 불안 의식을 다룬 작품이다. “사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258쪽) 자신 때문에 해방후 일본

16) 『(특집) 여성의 불안』(『여원』, 1962.3)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불안을 갖고 있다’는 키에르케고르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사춘기의 불안, 연애·결혼, 임신·출산 등 더 많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으로 밀항을 한 인규는 다시 구라파로 떠나려던 상황에서 고국의 전쟁 소식을 듣는다. 얼마 후 선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그녀의 동생으로부터 듣게 된다. 그가 조국에 두고온 여인 선희는 그에게는 “마치 제 혼과 몸의 일부인양, 언제나 제 속에 자리잡고 있는”(260쪽) 존재인데 “조국과 선희에 대한 감정을 똑같이”(260쪽)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 선희의 죽음으로 인규는 귀향을 하게 된다. 그녀의 일기를 통해 그는 그녀의 삶과 “감정의 세계”를 읽게 되는데, “밀물같이 밀렸다 흐터졌다 하는 이 감정! 발작적으로 허전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또 허무하고!”(264쪽)라고 쓰여진 그녀의 일기는 그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의 무덤을 찾고는 다시 떠나는 인규의 마음은 “큰 일을 치른 것같은 흥가분한 마음과 함께 무언지 더했어야 할 것같은 께름직한 마음이 피곤과 함께 억압”(266쪽)하는 느낌이다.

알 수 없는 불안, 허무, 발작적 감정 등은 이 시기의 여성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정서로 보인다. 작품들은 이러한 여성인물의 자기 감정을 발견하는 과정을 다루기도 하는데 최예순의 『탈각』(『여원』, 1957.1)은 특히 감정의 발견이라 할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백철은 선후평에서 “주제는 서구의 근세 문학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전개한 심리수법은 꼭 새롭다”(232쪽)는 평을 내리고 있다. 주인공 ‘연이’는 엄격한 집사 아버지 밑에서 교회당에 갇혀 살다시피 성장한 인물이다. “열아홉이라는 나이가 들 때까지 교회당의 높은 천장에서 비치는 고색(古色) 보랏빛 그늘에서만 살아온”(229쪽) 연이는 “일년 열두 달 검정 양복밖에 모르는 아버지”(229쪽)의 감시 하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 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이유는 집을 나간 아내 때문이다. “금전과 애욕에 눈이 어두어”(232쪽) 집을 나간 아내는 현재는 다방 마담이 되어 남자들 사이를 누비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이에게 사랑의 편지가 도착했고, 그로 인해 연이는 새로운 감정에



눈 뜨게 된다.

『이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곳에 더 뜨거운 것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게 뭐냐』 『저도 몰라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하느님의 딸이 아니냐』 『아냐요. 사람의 딸입니다.』(238쪽)

‘더 뜨거운 것’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의 딸로서 가지는 감정을 발견한 그녀는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감정의 발견은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의 주된 관심이었을 것이다.

‘불안한 감정’과 ‘뜨거운 것’이라 표현되는 여성의 감정은 흔히 여성의 센터멘탈리즘으로 해석되고 비판되는 여성문학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의 구조가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적 욕망의 발견 때문으로 보이는데 억압된 욕망을 발견하지만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은 여성이 욕망을 발견하는 것 자체를 불온한 것, 불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홍정자의 『총명의 종말』(『여원』, 1961.2)은 파괴적인 열정을 지닌 언니의 삶을 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동생은 상식적인 시선을 지닌 인물이고 언니는 사랑에도 감정에도 솔직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다. 언니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현실적인 감각의 동생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최정숙의 『공원근처』(62.1)는 1인칭 소설로 아직 구성은 어색하지만 ‘나’의 내면풍경을 탐구하는 새로움이 있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물에 빠져죽으려 했던 소녀와 죽은 애인이 자살한 장소인 공원을 찾아온 남자 등이다. 이들에게 느끼는 묘한 유대감은 허무, 고독, 죽음 충동을 투영한다. ‘나’(성아)의 상황은 유부남과의 사랑과 이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이다. 어두운 밤 공원에서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주

인공은 펄쩍 삶의 욕망을 향해 뛰어나온다. ‘타나토스’ 죽음의 공포에서 비롯되는 생의 열망을 그려내서 “현대적인 감각”, “감정의 세계가 넓고 다채로왔다”(235쪽)는 심사평을 받았다.

김채숙의 『눈 주변』(『여원』, 1964.1)은 독특하게 섹슈얼한 욕망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국적이고 높같이 축축한 이미지로 그려진 ‘석현’은 외국여자와 사는 이국적 이미지의 동경의 대상이다. 주인공 상희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 함께 떠날 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언니의 방해로 오해한 채 헤어지게 된다는 간절한 줄거리이다. 작품은 욕망을 이미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박혜숙의 『진공지대』(『여원』, 1966.1)는 고3인 딸의 시선으로 부모의 갈등과 애증의 관례를 그려낸 작품이다. “부모간의 불화의 원인을 경제적인 면과 성격적인 면 내지 육체적인 면에서 설정한 것은 치밀한 계획”(194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도미노’(都美魯)라는 ‘튀기’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엄마의 소녀적 취미가 만들어낸 천박한 이름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이름을 달고 평생 살아가게 된 ‘나’의 시선으로 그려진 엄마는 사치와 낭비, 자신의 이름다움을 찬양해줄 남자가 필요한 인물이다. 엄마를 창녀시하는 자신에게 몸서리쳐지기도 하지만 엄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 언제나 과장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녀는 “감정을 연극배우처럼 걸치레로 풀로 붙인 것처럼 달고만 있어서 조금만 눈여겨 보면 그 진의를 대변에 알아낼 수 있었”(201쪽)인데, 마흔 세살의 나이에도 전혀 어른이 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이 된 나는 어느날 아버지의 방 앞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된다. 감정적이고 나약한 엄마와 성적 육체적으로 엄마를 거부하는 아버지의 무언의 학대를 알게 된 순간 ‘나’는 엄마에게 여자로서의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된다. 결국 엄마는 자살하게 되고 엄마를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랑했다는 아버지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다. 성적 갈등을 다루

었다는 주제적인 측면보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엄마의 ‘감정’에 대한 성격화이다. 감정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물의 성격화는 현상여류문에 작품들이 발견하는 여성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자기 욕망에 대한 드러냄이 현실적 성찰의 매개없이 개인적 불안과 감정의 과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인물에 대한 발견이라는 점이다.

박진숙의 『부재』(『여원』, 1970.1)는 “이야기 즐거리라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러나 그 심리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문장과 능숙한 어휘구사, 관찰력, 훈련된 감수성, 개성적인 표현들만으로도 충분히 독자를 끌고가서 재미도 준다”(208쪽)는 평을 받았다. 『진공시대』가 자신의 욕망을 감정의 과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을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냈다면, 이 작품은 여성간의 매개와 성찰이 좀더 진전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양장점에 들어가보고 싶어진 것은 순전히 그 소오파의 탓이었다.”(214쪽)는 신선한 도입부로 시작된다. “고달팜과 더위, 그 답답한 더위, 내가 느끼는 것은 현기가 아니라 더위였고 끈적거리는 땀내로 견딜 수 없어했다.”(218쪽)는 표현처럼 간혀 있는 여성의 심리적 정황을 표현하는 서술방식이 주목된다. 주인공 ‘나’(기영)는 가난한 고학생으로 가정교사 겸 가정부로 김선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홀아비인 김선생을 사랑하게 된 그녀는 마음을 접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만난 ‘양장점 마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사랑의 갈등과 귀향, 개심 모티프는 신경숙의 『퐁금이 있던 자리』를 연상시키는 구조여서 매우 흥미롭다. 주인공이 고향에서 만난 양장점 마담은 일류대학을 나와 독신으로 사는 고독한 인물이다. 이 인물의 유편적인 삶과 고독은 ‘나’로 하여금 다시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다. 게으르고 늘 소설인가 희곡인가를 끄적거리는 양장점 마담의 삶은 ‘나’의 도피적인 마음을 되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 내 휴가는 여기에 없다. 한 눈을 팔고 있다

시방 나는. 나의 진정한 휴가는 이 포도나무 아래에, 기숙이의 방안에, 다 크 그리인의 소오파에 아무데도 없다. 저 언더리나던 생활, 그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건강한 시(詩) 속에 나의 휴가는 있었던 것이다.”(225쪽)라는 마지막 대목에서 ‘나’는 생활로 돌아가 다시 싸울 각오를 다진다.

인물들이 나의 내적 시각으로 그려지고, 모든 관계도 ‘나’의 시각에 의해서만 서술된다. 그리하여 내적 풍경이 강화된 서술상황이 만들어진다. 1인칭 서술상황은 사건보다는 주인공의 내적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서술방식이다. 1인칭 서술상황을 선택하여 이 작품은 여성의 자기 성찰이 가능한 서사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작품들을 살펴 보면, 아직 미숙한 작품들도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수필분야가 중간에 슬그머니 공모 장르에서 빠진다거나 심사평은 문장 표현과 소설적 구성에 대한 요구가 중심을 이루는 등<sup>17)</sup> 여성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특징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도 얼핏 얼핏 여성의 욕망에 대한 표현 욕구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언니의 파괴적 열망을 다룬 『충명의 종말』이나 ‘늪’이라는 이국적인 신비함으로 이미지화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다룬 『늪주변』 뿐만이 아니라 현상여류소설 전반에 드러나는 ‘불안’ 의식 역시도 여성의 실존적, 상황적 불안에 대한 인식<sup>18)</sup>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억압되어 있던 욕망의 발견 자체가 불안 혹은 감정의 과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

17) 장르 서열이 시대 권력에 따라 재편된다는 분석은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창조된 고전』, 왕숙영 옮김, 소명출판, 2002, 23-30쪽. 현상여류문에 공모장르 중에서 수필이 빠지고 시조가 신설된 경우도 이러한 장르 서열의 재편과 관련이 있다. 시조 부흥운동과 민족주의의 관련에 대해서는 추후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18) 『특집 여성의 불안』(『여원』, 1962.3)에서는 여성의 불안을 생애주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삶의 불연속성에서 오는 여성의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상황적 불안으로는 전쟁의 상처 전후의 가난을 떠맡게 된 여성의 상황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오는 불안을 의미한다.

다. 그렇다고 자기 경험의 전면적 드러내기로 진전되지는 못 한다. 『여원』역시도 기존의 문학제도와 같은 남성적 시선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의 과잉에 대해서는 감상성에 대한 비판에 압도되어 여성의 불안의식이나 감정의 구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여성이 남성적 서사의 모방을 그만두고 여성적 글쓰기를 시작하기에는 아직 여성작가들은 제도의 힘에 눌려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부재』의 경우 여성들간의 관계에서 자기 발견을 해나가는 구조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성찰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조건 현실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자는 상투적인 결말로 회귀하고 있다. 여성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기보다는 아직은 외적인 시각 혹은 남성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욕망을 바라보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 5. 맺음말-주부 담론과의 균열과 갈등

이상의 현상여류문예의 특징과 이 시기 『여원』의 중심 담론과 비교해 본다면, 여성들의 글쓰기가 ‘알뜰 주부’의 역할이나 성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이 드러내는 여성의 체험이나 감정의 특성은 알뜰 주부의 과학성, 합리성과도 내조를 잘하는 따뜻하고 현명한 아내와도 적극적 교육자로서의 어머니와도 무관해 보인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원』의 중심 이념이 이 시기의 남성중심의 지배 담론과 관련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글쓰기는 그러한 지배 담론과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원』 담론을 이끈 필자들이 주로 남성이었다는 사실<sup>19)</sup>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 창간 이후 8년 동안 동원된 필자의 연인원수는 8902명, 이들 중 남성이 6479명, 여성이 2423명으로 남성필자가 73%, 여성필자가 27%를 차지한다.(『여원』 100호 기

『여원』의 등단작들은 주부 담론과는 충돌하지만 아직 여성의 자기 발견의 서사로는 진전되지 못한 여성문학의 맹아적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의 드러내기나 욕망의 발견 등 자기고백적 글쓰기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은 ‘여성적 글쓰기’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장르적 특징에서는 수필이나 수기류와 혼동되는 장르해체적 특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장르 위계 속에서 수필이나 수기류는 시나 소설에 비해 하위 장르로 인정되었고,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글쓰기도 하위 위계로 평가된다.

여성적 글쓰기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성문학이 출발에서부터 안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여성문학을 ‘여성의 차이로 보는 젠더 미학’이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밝히려 노력해왔다면, ‘역사적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젠더 정치학’의 입장에서는 여성적 글쓰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이라는 호명이 불러내는 담론의 정치적 역할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로 다른 방향의 이 연구들은 통합적 시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호명이 담론의 정치적 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저술에도 일정한 경향성을 만들어낸다는 해석도 그 하나이다.<sup>20)</sup>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에게는 일정하게 선구성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글쓰기에서도 일정한 경향적

---

님, 『여원의 분석과 통계』, 1963.12, 109쪽) 문학 분야 필자가 주로 여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담론의 필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필자 비율은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여성 필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론의 주 필자가 남성이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20) 페미니즘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Toril Moi, *Sex, Gender, and the Body*, Oxford Univ. press, 2005, pp.4~9 참조. 독자적인 여성미학에 대한 논의는 프렌치페미니즘의 헬렌 식수, 루스 이리가라이 등의 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Rita Felski의 *Beyond Feminist Aesthetics*(Harvard Univ.press, 1989)도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의 글쓰기에는 자전적 경향이 두드러지며, 남성의 선조적 서사 중심 작품과는 다른 원환적 혹은 나선형적, 탈중심적 서사의 경향성이 드러난다. 서술의 특징에서도 머뭇거림이나 자기 은닉의 서술이 자주 등장하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르 해체적 특징도 보인다.<sup>21)</sup>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용어 대신 ‘글쓰기’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이유도 이러한 장르 해체적 경향을 담으려는 노력이다.

195,60년대 여성에 관한 중심 담론을 이끌었던 『여원』의 현상여류문에 당선작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자전적 경향이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설이 수필이나 수기류와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이 이후 여성적 글쓰기의 장르로 어떻게 정착해가는가를 추적 분석해 본다면 한국문학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1) 이선옥·김은하, 「여성성의 드러내기와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의미」, 『한국소설과 페미니즘』, 예림기획, 2002, 215쪽.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여원』, 1955. 10-1970.4

『여상』, 1962.11-1967.11.

###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1.

레이몬드 윌리엄즈, 이일환 역, 『문학과 이념』, 문학과지성사, 1982.

이선옥, 『한국소설과 페미니즘』, 예림기획, 2002.

쥬디스 뉴튼·데보라 로젠펠트, 『유물론적 여성해방비평을 향하여』,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90.

최원식 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2.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창조된 고전』, 왕숙영 옮김, 소명출판, 2002.

Rita Felsky, *Beyond Feminist Aesthetics*, Harvard University, 1989.

Toril Moi, *Sex, Gender, and the Body*, Oxford Univ. press, 2005.



## Abstract

Gap between 'Jubu Discourse'(Wife Discourse) and Women's writing  
- 『Yeowon』 195-60

Lee, Sun-ok

This article interrogates how 'Jubu(=wife) discourse' and literary critics and women's novel intersect in 『Yeowon』. 『Yeowon』 is the famous women's magazine in 195,60. Particularly many new women writer took the platform through 'YoryuHyonsangMunYe' of this magazine(=the new women writer contest). This article study on the novels which are the prize winner in 'YoryuHyonsangMunYe'. First one can argue that this novels reflected women's experiences about the crisis of marriage and living after Korean war. Second one can argue that this novels revealed the structure of feeling which called women's sentimentalism. But this feature was kept down by male centered literary critics in this magazine. Also this novels feature didn't reflect 'Jubu(=wife) discourse' which was a main ideology. Therefore, we can find that self-confession narrative of women's writing is not accept in the ground of men's literature.

**Key words** : gender, women's magazine, women's literature, Yeowon, 'YoryuHyonsangMunYe' of Yeowon(=the new women writer contest)

■ 본 논문은 4월 15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